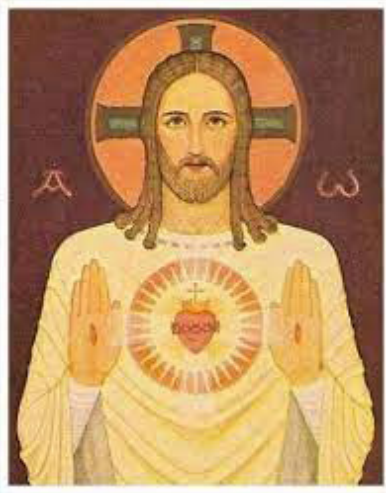


동중부 KCLC Newsletter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
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
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요한 1, 17-18)

CLC-USA 소식

- CLC-USA 이나시오 성인 축일 줌 모임 (7/30/2022) 계획
- 2022년 5월 22일- 29일 Laudato Si' 주간을 맞이하며 나온
실천 방안 

NKCLC-USA 소식

- 새 양성부 코디 박연순 에스터 자매님 임명
- 새 총무 Kate Lee 이사벨라 자매님 임명
- 서부 KCLC 주최 송 봉모 신부님의 여름 영성 강좌 초대 (6월26일)
주제 : 순례자 아브라함 (1)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동중부 소식

- 4월 8일 사순피정 교황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동욱 미카엘 신부님) 마침, 91명 참석
- 시노드 나눔 report 마침
- 4월 30일 팀장 모임 - 팀보고, 설문지 결과 안내, Book Club 계획 중,
Newsletter contents 협조, 의장의 각팀 방문 계획, 비대면과 대면
모임에 팀 선택 등이 논의됨
- 8월 연 피정 안내 - 피정 신청서 
- 5월 25일 김연옥 아녜스 자매님 - 팀장 코디 임명

양성부 소식

- 4월 23: 팀장 코디의 필요성과 선출 제안, Book club 창설 의견
- 각 팀의 기도 자료 & 영적 자료 Share 하기
- 종신 서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NKCLC에 건의하기
- 6월 4일 : Book club은 팀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 서약 피정 안내, Cluster 모임 계획, 임원들의 임기 안내

가이드 모임

- 6월 11일
 - 연피정 면담 가이드 & 피정 가이드 코디 결정 및 세부 사항 논의
 - 정강엽 신부님과 피정 가이드들의 준비 모임 의견 - 서약 피정을 위한 신부님 초대
 - 수퍼비전과 가이드 피정 의견 - 가이드팀 & 양성부팀 함께 미사와 모임 계획



- Ponte Sisto Bridge 이냐시오 성인께서 사색하시던 다리 -



우크라이나 작가 Solomia Kazanivska

요한 20.11-18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15-16)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가 당신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당신을 찾는 마리아 절실한 마음에 물꼬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아”라고 부를 때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을 만

납니다. 당신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건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건드림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사물을 보나 만나지 못하고 소리를 들으나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저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마리아와 당신의 모습에서 절실함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당신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눈과 귀를 덮고 있는 그 무엇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당신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을 축복해주십시오. 그 간절

함으로 다른 곳이 아닌 당신이 있어야 할 곳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당신을 만난 기쁨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신이 저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루카 24.35-48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일의 증인이다.” (47-48)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죄의 용서와 회개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마침이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활 첫마디가 회개로의 초대라는 것을 안다. (마태오 3.17) 그런데 오늘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 예수님께 초점을 주고 말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죄? 죄란 예수님의 삶을 의지적으로 재현하지 하지 않는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에) 우리 자신의 가난이 바로 죄가 아닐까?

오늘 복음을 보면 자기 골방에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그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는 것, 배신의 아픔을 투척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일을 의지적으로 하신다.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보았다. 우리도 들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하지 않게 들린다. 그것을 보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나 이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말로 들린다. 그런 증인의 삶을 요청하신 것이라 믿는다. 완전한 증인이 아니라 어설픈 증인이라도 언젠가는 완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희망으로 기도하는 증인...

From Fr. Macario

Project #177 열매 - Hesed

헤세드란? '구체적인 상호 의무의 실천'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훗날 신의, 자애, 자비 등의 추상적인 말로 발전했다.

1. 각자 마음에 와 닿는 질문을 팀원들과 나눕니다.

• 김정수 이나시오 : 미국으로 이민와 첫 직장생활을 할 때 먼거리 출퇴근에 예수회 신부님들의 테이프를 듣는 것이 나의 큰 즐거움이며, 신앙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며 내 마음에 불을 놓은 시간이었다. 그 후 영세를 받고 바로 CLC로 입문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다.

서약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커지고, 우리 헤세드팀 공동체간의 우정이 커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그로인해 사도직의 열정도 커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 김정현 엘리사벳 : 예수회 신부님들의 피정을 참석하며 주님을 알게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 성당에서 하는 Light Work을 하며 CLC 지원기에 도전하게 되었다. 헤세드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19번 피정을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의 가난했던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힘든 이웃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힘쓰고, 서약을 한 후는 CLC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커지면서 헤세드팀과 형제애로 주님안에서 사랑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음에 큰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

• 심정녀 안젤라 : 한국에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생명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사랑, 타종교의 이해와 함께 협업하며 사도직에 대한 열정이 키워졌다. 그 후 미국에 와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면서 레지오 등 교회활동을 하고 CLC 피정과 CLC 가이드등 임원활동을 통해 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종신서약을 통해 내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

임을 깨닫으며 더욱더 하느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또한 미국에서의 직장생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고 나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을 깨달을수록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길을 찾다보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사랑에 대한 응답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 기도하고 사도직에 도전하며 더욱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

• 이정렬 마리아 :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기회, CLC 침묵피정을 통해 주님과 만났던 시간, 병마와 싸우는 과정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CLC 공동체로 나를 이끌어 주신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내 자신이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화로 가득할 수 있음이 나에게 큰 열매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 한시자 프란체스카 : 유아세례 받아 신앙생활을 하며 형식적인 믿음생활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남편 유학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마치기에 힘든 상황이 오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며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깊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그 후 CLC 공동체를 알게되어 기도생활을 하며, 부족한 나에게 헤세드팀의 형제자매님들의 우정과 사랑으로 발전되고, 팀원들의 사도직 가르침과 종신서약을 통해 사도직 이해와 열정이 커지며, 오늘날 나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다. 앞으로 더욱 팀원들간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진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

2. 마음에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이의 나눔을 들은 후.

- 김이냐시오 :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 김엘리사벳 : CLC 안에서 주님과 가까워졌고, 사도직에 대한 열정과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있음
- 심안젤라 :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으로 보답하려는 마음, 기도와 사도직이 통합해 가는 느낌
- 한프란체스카 : 주님에 대한 열정, 사랑, 감사

3. 성령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는지 나눕니다. (열매)

- 김이냐시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형제애
- 김사엘리벳 : 사도직에 대한 열정
- 심안젤라 : 받은 사랑을 공동체와 함께 사도직으로 연결
- 이마리아 : 사도직에 대한 열망
- 한프란체스카 : 공동체의 사도직에 대한 협조

Project #177 열매 - 씨앗팀

상처와 회심 CLC 를 접하고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특별한 체험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않은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으며, 다른사람에게서 인내를 배우며 그분들의 관대함을 보고 제 자신이 성화됨을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지않기를 희망하며 서약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더 깊이 바라다보고 더 깊어진다면,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고 떠나지 않게 됨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이 177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받는다는 것이 CLC의 좋은 점입니다.

불편심이 들기도 하고 틀에 박힌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로운 기도가 아님을... 그러나 틀 안이라는 그 틀이 저를 받쳐주고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회심을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치유되고 있음을 느끼고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보고 사랑으로 갈 수 있음이 위로였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만 소통 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앞에서 '예' 하고 고개 숙여 대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심을 평화를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게 CLC 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CLC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서약이 깊어짐을 어떻게 느끼니까?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나에게 CLC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공개적인 서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깊은 생각 속에서는 아니지만 문득 문득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서약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사랑 봉사 그리고 우정이 깊어지는 일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마음 안에서 서약한 사람으로 열망이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후원회 이야기



선교자금 위한 판매
활동

예수회 후원회(회장: 한시자 프란체스카)는 서울과 캄보디아 두곳으로 나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 아네스, 용복순 데레사, 채민아 안나, 한시자 프란체스카가 주체가 되어 고추장 판매(직접 만듦), 땅콩 판매(농장에서 구입)를 통해 후원금 마련을 하여 매년 두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직접 우리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후원하면서 하느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우리 조금의 수고가 많은 은총으로 돌아오는 체험을 하며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세상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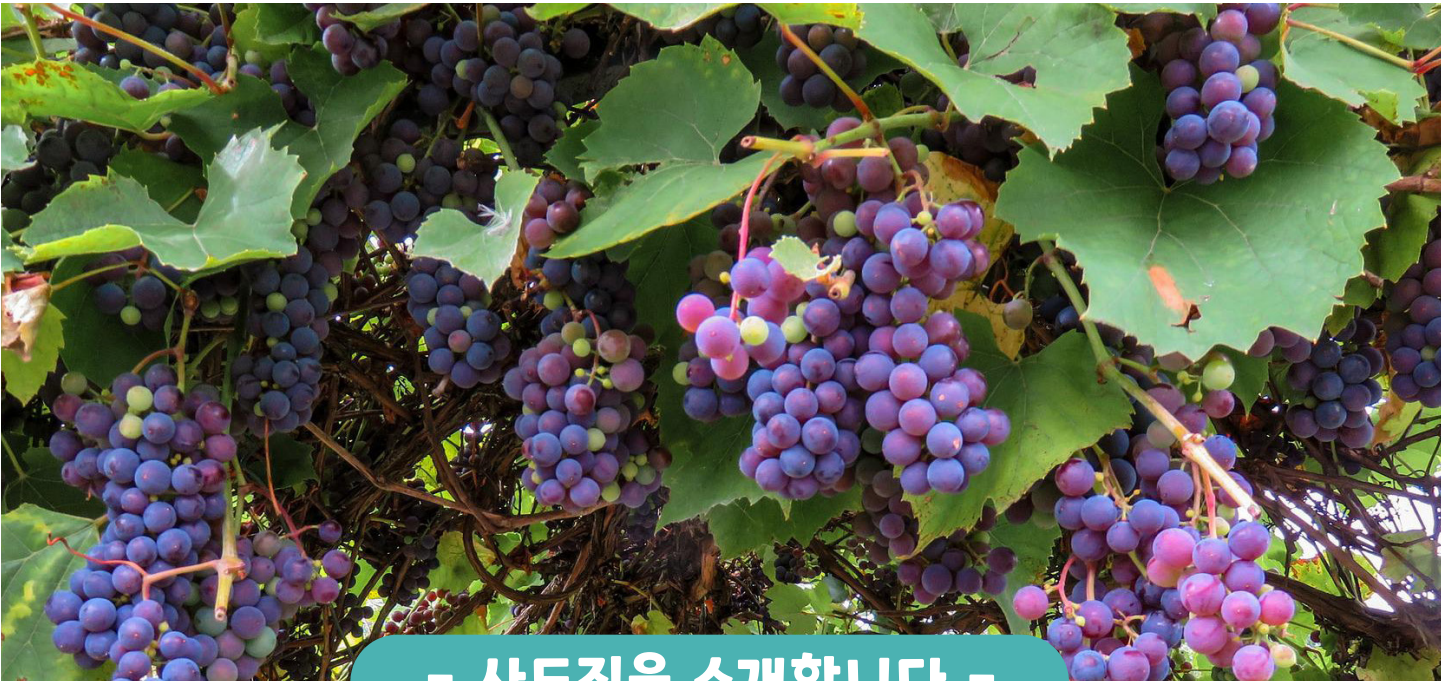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노력을 한다면 재활용할 것이 적어지게 되고 실천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다 쓰고 난 후 플라스틱 통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가지 BAR 나 STRIP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Shampoo bar, Conditioner bar, Dish detergent bar,

Laundry detergent Strip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Composting 가능한 Gloves, Cloths 을 사용하니, 버릴 때 가늘게 잘라서 음식물과 함께 composting 으로 버릴 수 있어서 환경에 도움이 되네요. 친환경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회사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그러

면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환경을 살리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믿구요.

저는 earthhero.com, amazon.com, Whole Foods Market 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부족한 정보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 연희데레사, 평화팀]



- 사도직을 소개합니다 -

포도원 팀

포도원팀에서는 팀 전원이 돌아가며 1달에 한번씩 도움의 사각지역에 계신 한 자매님을 방문하여 각 팀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때로는 음식, 약간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부를 확인하는 사도직을 5년 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도직으로는 불우 이웃의 매월 렌트비 보조, 본당에서의 제대 봉사, 묵주를 만들어 아픈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실로암 팀

실로암팀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도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페루 뿌갈파에서 사목하고 계신 클레오파 수녀님은 현재 무료급식소, 오라또리오와 방과후 교실 운영하고 계시며, 부모가 돌볼 수 없게된 어린이들을 수녀원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코비드 이후 페루로 봉사활동을 가기 어렵게 되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간 도움을 주던 단체의 후원이 끊어져 사목에 어려움이 많으신 수녀님께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일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송금을 하는 것을 목표로 베품시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버지니아 맘카페 베품시장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장단기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방과 생활 전자제품 (밥솥, 토스터기, 전등 ...), 가구 (식탁, 의자, 책상, 책꽂이 ...), 생활용품 (접시, 볼, 컵 ...) 등과 같은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건을 도네이션하시는 분들은 필요없는 물건들을 좋은 일에 도네이션하시며 치우실 수 있어서 좋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며 도네이션 하실 수 있어 서로서로에게 모두 좋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도네이션해주신 물건을 사진찍어 카페에 올리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과 시간 약속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 부피가 큰 물건은 도네이션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봉사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사진을 카페에 올리고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과 직접 연결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간 베품시장 운영을 통해 모금된 돈과 도네이션 받은 돈을 2021 크리스마스와 올해 2022 부활절 전에 수녀님께 송금하여 뿌갈파의 어린이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나누는 기회가 되는 행사를 진행하여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 페루 뿌갈파 클레오파 수녀님을 돕는 봉사자로부터

위 사도직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로암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